

뉴스초점

환율 불안 1달러 900원대 압박

# 수출기업 부담 가중... 성장 잠재력 저하 큰 문제

### 광주·전남 2800개 기업 수출악화... 경제 악영향

### 3월 1080원서 1017원으로... 엔화 하락도 비상

두 달 이상 멈추지 않고 있는 환율 하락세가 '1달러=900원대, 100엔=900원대'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주요 17개국 통화 가운데 절상률이 가장 높은 현재의 상황 환율 세자릿수는 시점의 문제일 뿐 연내 도래가 기정사실이라는 분위기다.

이러한 세자릿수 환율은 결국 광주·전남지역 2800곳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지역의 성장 잠재력마저 낮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2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증가 기준으로 엔화는 달러당 1017.7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증가인 1055.4원과 비교해서는 3.8% 절상(가치 상승)된 수치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 1080원선에서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20일 만에 1030원대로 급격히 주저앉았다가 이후부터 비교적 완만한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원·엔 환율도 비상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엔화는 원당 996.86원을 기록했다. 원·엔 재평환율은 지난 3월 100엔당 1000원선이 깨진 이후 990원선까지 계속 위협하고 있다. 한때 1500원에 육박했던 것에서 30%나 절상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세자릿수 환율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미쓰비시도 UFJ는 연말에 달러당 환율이 975원, 웰스 파고는 990원, 크레디트스위스는 975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전보다 50~70원 하향 조정할 것이다.

미국 경기회복과 양적완화 마무리에 따른 달러 강세 요인을 들어 세자릿수 환율 시대 도래시기를 내년으로 점치는 시각도 있기는 하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1.2분기 환율전망치를 각각 980원, 960원으로 잡고 있다.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세자릿수 환율 진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다. 최근의 원화 강세 기조의 배경에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707억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이 새로운 안전 투자처로 각광받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에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이 추가 요인이 됐다.

문제는 경제 여파다. 원·달러 환율 하락과 더불어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엔화, 위안화는 약세 기조를 보이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된 형국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 1000원 붕괴는 수출경쟁력 약화와 관광수지 적자 확대로 내수 경기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을 기록할 경우 국내 총수출이 전년 대비 7.5%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실제 올해 사업계획 수립 시 기준 환율을 1050원으로 설정한 기아자동차는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800억원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구조다. 단순계산하면 현재 2500여억원이 증발한 셈이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삼성전자 '셰프 컬렉션 풀 라인업' 출시

삼성전자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미트패킹(Meatpacking District)에서 혁신적인 생활가전을 통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제안하는

'삼성 리빙 아틀리에(Samsung Living Atelier)' 행사를 열고, 냉장고와 오븐·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등 '셰프 컬렉션 풀 라인업' 출시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수출물가 6년5개월만에 최저... 기업 채산성 악화 우려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동반 하락했다. 특히, 수출 물가는 6년5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수출물가 지수(2010년 100 기준)가 86.80으로, 전월보다 1.6% 하락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출업체가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손에 쥐는 돈이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4월보다 평균 1.6% 감소했다는 의미다. 그만큼 채산성이 나빠지는 것이다. 지난달 수출물가 지수는 2007년 12월(86.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출물가의 하락은 원·달러 환율이 4월 평균 1달러당 1044.55원에서 5월 1024.99

원으로 1.9%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달러화 등 계약 통화(수출할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통화)를 기준으로 한 수출물가는 오히려 전월보다 0.2% 올랐다. 품목별로는 냉동 어류(-4.2%), 은괴(-3.4%), 경유(-2.5%) 등의 내림폭이 컸으며 냉동참치(8.0%)는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원화 기준 수출물가는 8.1% 하락했고 계약 통화 기준으로도 0.7% 낮은 수준이다.

5월 수입물가 지수(95.49)도 전월보다 1.7%나 하락, 2010년 2월(95.44)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0.9% 상승했지만, 원화 강세의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계약통화 기준으로는 전월보다 0.1% 올랐다. 수



입 물가가 내리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합뉴스

## 코레일 '내일로 티켓' 판매

코레일 광주본부는 12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학을 맞아 만 25세 이하의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7일 동안 무제한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티켓'을 출시·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일로 티켓은 최근 여행문화가 틀에 짜인 일정에서 탈피해 점차 자유·개별여행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지난 2007년 첫 출시됐다.

내일로 티켓 구매자들은 유효기간인 7일간 ITX-새마을·새마을·누리로·무궁화호·통근열차를 임석(자유석)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5만6500원(5일), 6만2700원(7일). 자세한 문의는 광주역 여행상담센터 062-525-4835.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11.65 (+3.02)
- ▲ 코스닥 536.14 (+2.84)
- ▼ 금리 2.79% (-0.03)
- ▲ 환율 1017.70원(+2.00)

## 중산층 기준... 월소득 515만원, 주택 35평 보유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 가구의 모습은 한달 평균 515만원을 벌고 35평 규모 주택을 보유하는 정도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12일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국 성인 남녀 817명을 상대로 이상적인 중산층 모습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중산층 가구는 월 515만원을 벌고 이 가운데 341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네 차례 가족들과 외식을 즐기며 외식비로 매월 12만3000원 정도 지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산층의 주택 평수는 34.9평, 주택 가격은 3억7000만원이었고, 이를 포함한 순자산은 6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응답자들은 또 소득의 2.5%를 기부하고 1년에 3.5회 정도는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여겨 사회공헌에 대한 높은 관심도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들의 평균적인 현실 속 삶은 이와는 거리가 있었다. 응답자 가구는 매달 416만원을 벌며 252만원을 쓰고 27평 주택을 포함해 3억8000만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실제 월 외식 횟수는 3.2회, 외식비용은 6만3000원이었고, 기부액은 소득의 1.1%, 자원봉사는 월 3.1회 수준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이상적 중산층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려는 소득·자산을 늘리는 기반 마련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 삶의 질 향상, 사회기여 문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빠듯한 생활비 속에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동호인 교류 저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유선전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43%포인트다. /연합뉴스

## 자동차 첫 구매... 남성은 소형 이상, 여성은 경차

### 광주 카사랑방 설문조사

자동차를 첫 구매하는 남성은 소형급 이상의 차를, 여성은 경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 중고차 전문 사이트 카사랑방(carsrb.co.kr)이 내놓은 '내 생애 첫 차'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주시민 2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 가운데 여성은 40.9%가 첫 차로 경차를 구입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남성은 28.7%가 소형차를 첫 차로 선택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소형차 다음으로 준중형차(27.7%)와 중형차(26.6%)를 구매했으며 SUV·RV가 11.7%, 대형차와 승합·트럭은 각각 2.1%에 그쳤다. 여성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경차는 1.1%에 불과했다.

첫 차를 구입한 연령대는 20대 중후반이 가장 많았다. 남성은 '25세 이상 30세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0.4%였으며 '30세 이상 35세 미만'(31.9%), '20세 이상 25세 미만'(12.8%), '35세 이상 40세 미만'(8.5%) 순이었다.

여성들은 39.4%가 '25세 이상 30세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30세 이상 35세 미만'(30.3%), '35세 이상 40세 미만'(13.6%), '40세 이상'(12.1%) 순으로 집계됐다.

'첫 차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녀 모두 '차량 가격'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1.3%가 차량 가격을 선택했고, 이어 연비(26.9%), 색상 및 디자인(9.4%) 순이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 부수  
광주일보 구독문의 062-222-8111

## 지리산 노블랜드

산지입주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백운산 500고지

콘도/팬션/별장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장소!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화개장터, 샴계사, 화엄사, 노고단 근접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28평(26실) 9800만원	40~50%정도
56평(1실) 1억9600만원	대출가능

지리산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  
분양상담 061)783-6001 H. 010-2928-0202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062)418-9000 H. 010-4451-6686

##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주1회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